

# ‘AI서비스로봇 산업’ 글로벌 중심지 ‘경북’이 만든다

인탑스, KT 등 8자간 업무협약  
로봇 활용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농업·물류·안전 등 로봇3대분야 집중

경북도가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중  
심지로 발돋움 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  
걸음을 시작했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구미시, 베어로보틱스, 인탑스, KT,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8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와 구미시, 기업, 연구기관 등이 로봇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북을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자 추진됐다.

지난달 28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



경북도는 21일 도청 사립실에서 구미시, 베어로보틱스, 인탑스, KT,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8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셀로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KT와 베어로보틱스를 만나 AI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날 협약은 ▲AI서비스로봇 산업육성을 통한 스마트 민생경제 대전환 공동대응 ▲AI서비스로봇 부품국산화 및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협력 ▲AI서비스로봇 연구개발 및 실무형 전문인력양성 협력 ▲AI서비스로봇

설계·생산·운영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AI서비스로봇 클러스터 조성으로 도내에서 제조한 로봇 및 부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서비스로봇을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사와 부품 기업 간 협업

을 강화하고 부족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AI서비스로봇 글로벌 제조1등 생산기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도 로봇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내에 구축된 로봇실증센터(안전, 수중, 농업, 교육)와 경북도 과학기술 정책지원관으로 위촉된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와 함께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북의 특화분야인 농업(팜봇), 물류(AMR), 안전(코봇) 등 로봇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비스로봇은 고령화, 인력난으로 인해 가정,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현실에 꼭 필요한 로봇”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은 기업과 연구소, 기관이 협력해 경북도가 글로벌 로봇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경상남도

####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경상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남해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조사 등 8개 분야 22개 항목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지난해 대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을 한 건 남해군 지방세정에서 처음 있는 쾌거다. /경남=이도식 기자

### 부산시

#### ‘부산엑스포’ 서포터즈 발대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원하는 부·울·경 시민 600명으로 구성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실버 서포터즈’ 발대식이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에 위촉되는 실버 서포터즈 600명은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600명이라는 인원은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연도인 ‘2030’이라는 숫자에서 20과 30을 곱한 숫자다.

실버 서포터즈는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하며 BIE 현지 실사단의 홍보 지원, 시민 캠페인, 부산바다가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시의 주요 행사를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울산시, ‘인구유출’ 대응 나서 4.9조 들여 살고싶은도시 조성

4개 전략, 100개 세부과제 등 구성  
일자리창출·주거지원 등 인프라 구축

2021년 말 수립된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사업이 반영되어 보완·수정된다.

울산시는 21일 시청에서 ‘인구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년~2026년) 수정(안)’ 및 ‘2023년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2026년) 수정(안)은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미래성장도시 기반 강화 ▲정주여건 개선 ▲생애전반 맞춤형 지원강화 ▲인구변화 선제대응 등 4개 전략, 14개 전략과제,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수정 사항은 세부 추진과제가

당초 79개였으나 100개로 조정(신규 30개, 변경 4개, 제외 8개, 통합 1개)됐다.

사업비는 5년간 당초 3조 9041억원에서 9218억원이 증가한 총 4조 8259억 원이 투입된다. 2023년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은 총 99개 세부추진과제(1개 과제 완료)에 사업비 7853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과제를 보면, 미래 신산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및 교통기반(인프라) 개선을 통한 스마트거주 환경 강화, 문화·관광자원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해 풀잡문화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또 함께 하는 출산환경 조성,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 인구대책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구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찾아가고 싶은 봄섬- 여수 하화도

/전남도

## 전남, 하화도·관매도·반월박지도 ‘섬캉스’

행안부·한국섬진흥원, 꽃 주제 선정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꽃(색깔)’을 주제로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봄섬’ 5개 섬 중 여수 하화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전남 3개 섬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수 하화도는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작용으로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인 해식애로 이뤄진 천혜의 절벽 자연경관과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섬 전체에 만발해 꽃섬으로 불린다.

진도 관매도는 지난해 여름 캠핑섬 선정에 이어 올해 봄의 전령, 유채꽃 섬으로 선정됐다.

신안 반월박지도는 퍼플섬으로 유명하다. 반달 모양의 반월도와 박 모양의 박지도가 보랏빛 다리로 연결됐다. 박지도에는 봄에는 라벤더, 가을에는 아스타 국화, 반월도에는 라일락, 수국 등이 만개해 보랏빛 꽃이 절경을 이룬다.

‘찾아가고 싶은 섬’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국 33개 섬을 선정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경주엑스포대공원 경북공역서 홍보 현판식

경주엑스포공원(대표이사 류희림·사진)은 서울 경북공역에서 김장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에 설치된 신라기마인물형석상에 경주관광홍보판을 부착하는 현판식을 오는 24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기마인물형토기를 주제로 한 한국최초 3D영화 ‘토우대장차차’의 작가 류철균경북연구원장도 참석을 한다.

한국관광 1번지 경북공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3호선 경북공역은 건설 당시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예술공간’이자 경북공을 축소해 놓은 듯한 ‘지하 박물관’으로 조성됐다.



경북공역은 벽부터 화강암으로 마감돼 조선의 정궁이었던 경북공의 이미지와 오버랩된다. 승강장에는 크게 확대된 신라의 기마인물형 토기 모형석상이 들어서 있다.

기마인물형토기(국보제91호)모형석상은 주인공과 시종상 한쌍이다. 말을 탄 인물을 묘사한 이 한쌍의 석상은 1924년 경주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를 실물크기로 재현한 것이다.

/경주(경북)=김상복 기자

## 전남, 농어촌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개인 통신비 60억 절감 효과

전남도가 농어촌지역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한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까지 240억 원을 들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 결과 2022년 한해 60억원의 개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 부담 비율로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지난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료와

이파이 3979회선에 대한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 건수가 전년(2억 1000만건)보다 48% 증가한 3억 1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데이터양으로 환산하면 전년(1726테라바이트)보다 41%늘어난 2463테라바이트로, 60억원이 넘는 개인 통신비를 아낀 셈이다. 이는 전년(15억원)의 약 4배 규모다.

전남도는 올해도 사업비 약 10억 원을 들여 1669회선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

LTE 기반의 버스 와이파이 500대는 5G 기반으로 전면 전환해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 순천시

####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0일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순천시는 수소경제 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 ‘순천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 미래순천의 100년 먹거리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립, 수소 산업 특화 단지 조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도시 조성,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등이다.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